

# ‘민주 텃밭’ 끌어안고 ‘安風견제’ 사전 포석

### ■ 당 지도부 광주서 ‘혁신선언’ 배경과 주요 내용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섬기는 정치 약속”

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광주를 방문,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결연한 의지를 담은 ‘혁신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정치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는 있었지만, ‘광주 선언’에 구체적인 개혁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선언’ 주요 내용=이날 민주당의 ‘을(乙)을 위한 광주선언’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정치혁신을 통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민주당은 광주선언에서 “우리가 옳으니 국민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군림하는 정치를 마감하고,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국민 속에서 배우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향상을 요구하는데 정권은 계과 의 이익에 몰두했다는 비판, 정파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싸움만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끼리끼리 공천하고, 맥을 이어가는 온당치 못한 일체의 정치적 관행에 눈감지 않겠다”며 “성장과 복지, 평화와 안보를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를 총원하고, 우리에게 익숙해진 모든 기득권과 낡은 관행을 과감하게 떨쳐내겠다”며 기득권 배제와 함께 새로운 인재영입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과제로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정치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안으로는 엄정하고 밖으로는 신뢰받는 정치 등을 제시했다.

◇선언 배경=이날 ‘광주 선언’은 여의도 국회나 영등포 당사가 아닌 ‘지방’에서 발표했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다.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을 맞아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선언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는 독자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17일부터 1박2

일간 광주를 방문하고, 호남지역에서 안 의원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 이른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선언’이 텃밭인 호남에서 ‘안풍’의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민심을 민주당에 묶어두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광주선언’ 주요 내용이 당내 혁신과 국민을 섬기는 정치 실현에 초점이 맞춰진 점으로 봐서 안철수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새 정치’를 민주당이 선점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날 방문에 김한길 대표 등 새 지도부와 소속 의원 72명이 동행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위기감을 읽을 수 있다. 새 지도부의 호남 방문은 지난 4일 전당대회 이후 처음이다.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회에서 ‘광

주 선언’과 관련, “민주당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광주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 민심이 안 의원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식한 듯, 안 의원과 당당히 경쟁해볼만한 궁극적으로는 연대의 대상임도 분명히 했다. 광주선언에서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 의원을 염두에 둔 듯 “경쟁적 동지관계에서도 당당히 경쟁하고, 국민의 명령이 있다면 동지로서 견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200여명은 광주선언을 발표한 뒤 5·18 민주묘지에 헌화·참배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 안철수 독자세력화 ‘시동’

### 대선후 첫 영·호남지역 방문 정국 의견 교환

### 광주 5·18 전야제 참석... 호남공략 방안 주목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계기로 영·호남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독자세력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우선 안 의원은 17일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포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독자세력화 방향 등 정국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김해 봉하마을로 방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안 의원은 봉하에서 광주로 이동, 5·18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하고 1박을 할 예정이다.

18일 오전에는 5·18 공식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에 광주·전남·전북 지역포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지역포럼은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였던 안 의원을 지지하는 지역 교수, 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자 세력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안 의원이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세력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의원이 보다 구체적인 진전된 세력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풍’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 의원의 이번 지역 방문에는 금태섭, 조광희 변호사와 송호창 의원, 정기남 부실장 등 측근 인사들이 동행하는 것은 물론 정국의 자발적 지지 그룹들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18 기념식에서는 민주당과 안 의원 지지 그룹의 세 대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안 의원이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큰 데다 국가 기념식이라는 점에서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국회의원 700여명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선언을 발표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김한길 대표 “남북신뢰 회복 대북특사 용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한을 방문, 남북 간 ‘신뢰의 다리’를 놓는 특사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연합 뉴스와 인터넷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에는 ‘신뢰프로세스’란 이름만 있고, 신뢰는 없다”면서 “내가 그런(남북 간 신뢰의 다리) 놓는 특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북한에 특사

로) 가라고 하면 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화해협력시대를 새롭게 열었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면서 “취임한 뒤에라도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으면 (남북관계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쉬워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제도약을 충분히 자신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라고 진단한 뒤 “계파주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게 인적 혁신”이라면서 “대통령이랑 계파 안배와는 다르며 목표를 분명히 해서 매진하다 보면 일체감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에 대해서 “당내 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면 관망했다”면서 “지금 자격심사 하면 이념적 문제를 갖고 심사하지는 건데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 도선관위 “순천정원박람회 입장료 지급 적법”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입장료와 교통비 등으로 현금을 지급한 순천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선관위는 16일 “지방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정액의 입장료와 교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

대로 중앙선관위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달 관내 초·중·고등학생 4만3000여 명에 대한 생태체험학습 예산으로 1인당 5000원씩(입장료 3000원·교통비 2000원) 총 2억2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순천정원박람회 입장료는 어린이 8000원, 중·고생 1만2000원이지만, 순천시는 체험학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할인권(어린이 2000원, 중·고생 3000원)을 발행해 학생들에게 입장료와 교통비 등을 지원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 與 중진들 “靑 전면쇄신·금주선언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방미기간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여론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16일 청와대에 전면쇄신 노력과 함께 금주선언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5선의 정의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청와대 공복이 중차대한 공무 수행 중에 보여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인사검증에서부터 공직감찰까지 시스템을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청와대가 앞으로 대통령 해외순방 때 공직기강팀을 동행시키겠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미봉책만으로는 곤란하다”면서 “우선적으

로 청와대 내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면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의 김무성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윤 전 대변인의 큰 잘못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성과가 빛이 바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면서 “공직자 한 명의 비뚤어진 생각과 행동이 만든 이번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 공직자는 더욱 심기일전해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 공직자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청와대 공직자는 금주선언을 하는 등 결연한 각오의 일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인간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화**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뻗어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19호 [광포]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안구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갈갈하고 눈앞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에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옆구리가 결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매매** 주인 직매함. 010-4667-9300

**목포. 2호 광장 코너**

- ⇒ 대지145평, 건물 433평, 2004년도 신축
- ⇒ 6층 건물, 1~5층 상가, 6층 고급주택, 주차장 별도
- ⇒ 감정가/시세-17억원
- ⇒ 임대-보 3억원에 월 1,800만원 (임대 중)
- ⇒ 대출-7억 3,000만원 (이자 월 380만원)
- ⇒ 매매가-15억 3,000만원
- ⇒ 수입-5억원 투자에 월 1,420만원
- ⇒ 층별 분할 매매가능, 1/2 매매가능(동업가능)